



재벌기업들의 쌀가공식품 수입을 보고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발전하기 마련이다. 쌀은 밥을 만들고 떡을 만들지만, 술도 만들고 각종 과자류, 식혜 등은 물론, 6.25동란 때에는 미수가루를 만들어 피난길 먹거리로 사용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출신 국회의원이 재벌들의 쌀가공식품 수입을 들추어 낸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얼마전 농협이 주관이 되어 어린이들을 빼고 거의 전국민이 쌀수입 개방반대 서명을 해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는데, 재벌회사들이 각종 쌀가공식품을 앞장서 수입하는 데는 이제 돈벌이만 된다면 막가는 데까지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뿐이다. 하기가 수입쇠고기 판매점 간판 밑에서 쇠고기 수입반대 서명을 받는 것이나, 바나나 수입을 반대하던 기관이 바나나를 대량 수입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우리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정신무장이 형식에 치우쳤고 내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처럼 수입개방에 푹푹 뭉쳐 잘 대응하는 나라도 없다. 형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해도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해 외국상품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국들도 만만치는 않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 최근 일본은 스시(초밥)체인업체가 미국산 쌀로 만든 냉동스시 수입을 추진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초밥이 쌀수입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초밥수입이 식량청 소관이냐, 보사부 소관이냐 하는 싸움도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므로서 끝나 버렸다. 스시(초밥)수입의 물꼬가 트이자 이번에는 미국의 세계적 종합식품회사인 캠벨사가 일본 현지법인인 캠벨저팬을 통해 전자레인지용 냉동도시락을 수출해서 양판점, 외식업체, 회사 등 단체급식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은 육류, 생선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쌀가공식품의 수입은 허용되는데, 미국의 쌀값은 일본의 20%도 안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산 도시락이 일본에 밀려들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결국 이는 우리도 불원간 학생, 회사

원들은 점심시간에 단체급식이나 야외 소풍·등산갈때, 각종 모임에 미제 도시락을 가지고 가게 될 지도 모른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이 도시락까지 수출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쌀만은 지킨다는 약속도 의미가 없어진다. 과자류 등 이미 쌀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재벌들이 떡, 쌀막걸리는 물론이고 쌀밥에 LA갈비, 소시지를 반찬으로 한 도시락 수입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락 수입개방은 셀러리맨들의 식생활에 혁명이 올 것이며, 설렁탕, 비빔밥, 칼국수 등 점심식사 위주의 식당들도 문을 닫아버리든가 도시락전문 식당으로 바뀔 것이다.

냉장육이야 설마 수입할 수 있을까 하고 '94년부터 빗장을 열기로 한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금년 미국이 대일본 돈육수출이 주로 냉장육이라는 점에서 과학의 발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식품산업은 쿡앤드 칠드(Cook and chilled) 시스템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 냉동 수매비축, 올라가면 수입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내 육가공산업의 조속한 발전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이 과거 사료곡물을 수출하다가 이제는 축산물로, 다음엔 런치미트·소시지 등 가공품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제 곧 돈까스, 동그랑땡 등도 밀려오겠지만, 돼지고기 김치찌개나 돼지고기 보쌈, 돼지갈비구이, 순대, 족발 등 우리 기호에 맞는 전통 가공식품의 수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라면, 냉동만두 등이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축산업계는 도축장 하나 변변한 것이 없고, 가공산

업은 보사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한다.

돼지값이 하락하면서 수매비축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공급량을 조절하는 비축 방법도 발전해야 한다. 돈까스나 돼지고기 햄버거, 소시지 등 주요 돼지고기 소비 품목으로 가공해서 냉장보관 하므로써 보관비용이나 맛에서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생산하는 농민과, 가공처리하는 업자들과, 이를 효율적으로 소비자에 전달하는 물류회사, 최종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병존(併存)이 아닌 유기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가공업과 유통업의 관계가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

농정개혁 공청회가 26일 농기협 강당에서 있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하여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도우려는데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문제는 농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세상은 넓고 변화의 조류를 타고 움직여 나가는데 “들을 필요도 없다, 나도 다 알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은 어쩔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고정적이며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경험이 제일이다”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자기가 가진 지식이 완전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변화하는 환경을 세밀히 관찰하고 정보를 얻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난 알아요, 이 해가 지나가고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양돈업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러한 노래가 유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